

법복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학과
 조교수 금기숙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부교수 조효숙

目 次	
I. 서론	(4) 세부장식
II. 한국 법복의 변천	2. 외국 법복
1. 대한민국 수립 이전	(1) 스타일
2. 제 1.2 공화국	(2) 색 채
3. 제 3공화국 이후	(3) 소 재
III. 국내의 법복의 조형적 분석	(4) 문 양
1. 현행 국내 법복	(5) 세부장식
(1) 스타일	IV. 요약 및 결론
(2) 색 채	참고문헌
(3) 소 재	ABSTRACT

I. 서론

법복은 일상적인 의복과는 달리 법의 존엄성과 법의 기준에 따라 시비를 분별하는 공정한 법관의 행위를 상징하는 복식이다. 그러므로 법복은 대내적으로는 착용자의 자긍심과 품위를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법의 존엄성을 표출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미지를 지녀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5년 근대사법제도 제 2세기를 출범하면서, 경제, 사회의 선진화에 발맞추어 국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법제도 개혁작업을 시작하였다.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상징성이 강한 법복도 개혁의

대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현행 법복은 미국의 법복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므로 한국사법제도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이 때에, 한국의 정체성을 지닌 새로운 법복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법복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착용되고 있는 법복을 분석하여 그 조형적 특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는 한국 법복의 실체 및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확인하여 현행 법복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새로운 법복 디자인을 위한 이론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의 대상은 먼저 한국 법복의 변천을 고찰하

고자 한다. 조선말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법복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행(1997년 12월 현재) 법복의 실상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한국 법복의 출현과 변천에 관한 내용은 현행 법복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의 법복을 수집하여 조형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법복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게 할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실물, 연구물을 포함한 문헌, 사진 등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외국 법복은 92개 국가의 법복이 수집되었으며, 이들의 조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스타일, 색상, 소재, 문양 및 세부장식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국내 법복의 변천

1.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

우리 나라에는 1895년 3월 25일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비로소 이 땅에 근대적인 재판기관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법규상으로 그 형태와 규격, 색상, 장식 등이 제정된 ‘법복’은 사법제도를 도입한 이후 1900년대가 되어서 출현하였다.

사법제도 도입 이전에 해당되는 조선시대에는 사법업무를 담당한 형조, 사헌부, 한성부, 의금부 등에 종사하는 관리들의 관복이 법복을 대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형조판서(정2품), 참판(중2

품), 참의(중3품), 대사헌(중2품), 판윤(정2품), 좌윤(중2품), 우윤(정2품), 판사(중1품), 지사(정1품), 동지사(중1품) 등의 관복이 지금의 법복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법복은 1906년 3월 21일 「평리원 이하 각 재판소 사법관 및 주사 재판정복규칙」이 발표되므로써 처음 제정되었다.¹⁾ 이것은 전통적인 관복의 형태와 양식을 유지하되, 포와 관모, 속대, 방뉴(方紐), 화(靴)의 종류에 따라서 착용자의 역할과 지위를 구분하였다. 포는 모두 흑색 착수로 동일하고, 반령(깃)과 속대, 방뉴 등의 색채에 변화를 주어 신분을 나타내었다. 즉 재판장, 판사와 시보는 자색 반령과 자색의 속대, 금제 방뉴를 하고, 흑색화를 신고 오사모(烏紗帽)를 착용하게 하였다. 검사와 검사 시보는 주황색 반령에 홍색 속대와 은제 방뉴를 하고 흑색화를 신고 오사모를 썼다. 주사는 녹색 반령에 녹색 속대와 흑각 방뉴를 하고 흑혜(黑鞋)를 신고 흑립(黑笠)을 착용하게 하여 판사와 검사를 구분시켰다(표 1). 그러나 아직 사진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복식이 오늘날의 법복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반드시 착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제시대 초기에는 이전과 같은 재판 정복을 입었으나, 1920년 7월 26일에 칙령 제222호「조선 총독부 재판소 직원의 복제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조선 총독부 판사, 검사 및 재판소 서기의 법복 제도를 일본의 것과 동일하게 하였다.²⁾

법복은 스탠드 칼라(stand collar)가 달린 검정

<표 1> 평리원 이하 각 재판소 사법관 금 주사 재판정복 규칙

품 목	의 복	속 대	방 뉴	화	모
재판장, 판사, 판사시보	자색반령, 흑색착수포	자색속대	금제방뉴	흑색화	오사모
검사, 검사시보	주황색반령, 흑색착수포	홍색속대	은제방뉴	흑색화	오사모
주사	녹색반령, 흑색착수포	녹색속대	흑각방뉴	흑혜	흑립

1) 대한제국관보, 제3409호, 광무 10년 3월 14일자(음력), p.47.

2) 조선총독부관보, 제2393호, 대정 9년 8월 2일, p.2.



〈사진 1〉 일제시대 법복



〈사진 2〉 1953년도 법복

색 가운과 법모로 구성되었다. 가운은 평면구성으로 재단되었으며 앞 중심에 부착한 4개의 숨김 단추로 앞에서 여며 착용하였다. 길의 전체는 4쪽의 직사각형 직물을 연결하여 구성하였고, 옆선에는 겨드랑이 부분에서 아랫단까지 삼각형의 주름을 안으로 잡혀지게 하였다. 앞길의 가슴부위에는 오동나무 꽃과 당초(唐草)문양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장식문양을 양어깨와 가슴의 명치 부분에 이르는 역삼각형 구도로 시문 하였으며, 법모의 중앙에는 구름무늬를 자수로 시문하였다(사진 1).

착용자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 문양의 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하였다. 판사는 가슴의 장식문양을 자색, 검사는 비색, 사법관 시보는 은색, 재판소 일반 직원은 녹색으로 자수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판사의 경우 오동나무 꽃의 숫자로 착용자의 지위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광복을 맞으면서 우리 나라의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은 일본식 법복을 폐기하였다. 특별히 지정된 법복이 없었으므로, 재판을 할 때 법정에서 상당 기간 한복이나 양복의 평상복을 착용했다. 심지어는 점퍼 차림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1946년 1월 군정청은 새로운 법관복을 현상 모집하여 결정하고 제정하였으나 실제 행해지지는 않

았다.

2. 제1·2 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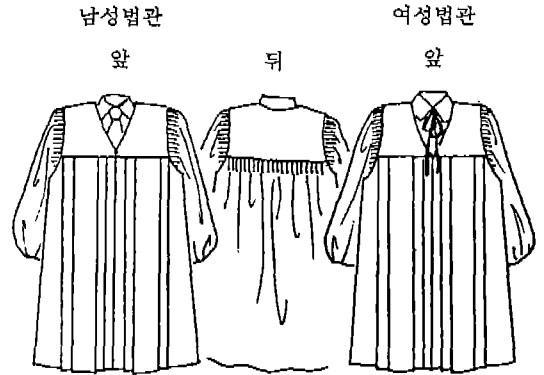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곧 이어진 6.25동란의 국난으로 인하여 몇년동안 우리의 법복은 정비되지 못했다. 그 후 1953년 3월 5일 발표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원 서기 복제규칙」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법복 제도의 시발이 되었다.³⁾

이 법복은 검정색 가운형으로 목 부분에는 스탠드 칼라를 부착하고 검정색 법모로 구성되었다. 법복은 한복과 같은 평면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길의 양옆에는 15cm 너이의 삼각형 무를 부착하고 있어서, 한국의 포에서 볼 수 있는 여유분과 활동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운의 앞 중심에는 5개의 숨김 단추가 달려있어서, 앞에서 여며 입도록 되어있다. 소매는 한국의 포에 자주 활용되었던 두리소매를 사용한 것이 주목된다. 앞 가슴부분의 중앙에 지름 20cm 정도의 무궁화문양이 도식화되어 자수되어 있다(사진 2). 법모도 앞 중심의 정면에 구름과 태극문양 등으로 구성된 문양이 자수로 시문되어 있다. 무궁화나 태극문양 등은 한국적인 특성을 표현하고자 한 조형의지의

3) 법원사편찬위원회,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pp.353-5.



〈사진 3〉 1966년 제정 법복



〈그림 1〉 법복의 도식화

표현으로 이해된다.

착용자의 신분은 문양의 색을 달리하여 구분하였는데, 판사는 백색, 검사는 황색, 변호사는 자색을 문양의 색채로 사용하였다.

3. 제3 공화국 이후

제3 공화국이 되면서 이전의 법복이 일제 시대의 법복과 유사하며 너무 권위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법복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새로운 법복을 제정하기 위해서 외국 법복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간편하다고 생각되는 미국 법복을 그대로 한국의 법복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 법복의 기본 형태는 대학교 학위복인 졸업가운에서 유래되었으며, 전체가 검정색 가운데형으로 실용성이 강조되었다. 대법원은 1966년 1월 15일에 대법원규칙 제 268호로 「법관복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같은 해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⁴⁾

법복은 검정색 가운데형으로 풍성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슴과 등부분에는 요크를 부착하였고, 요크의 아래에는 주름과 플리츠 등을 잡아주어 매

우 여유로운 형태를 보인다.

소매는 블라우징이 된 소매단 부분으로 과장된 형태를 보인다(그림 1). 넥타이는 검정색으로 통일하였다. 법복과의 색채조화를 고려하여, 백색의 좁은 사선 무늬가 있는 검정색 넥타이를 제정하였다. 법모는 착용하지 않았다(사진 3)(그림 1).

대법원은 1986년 「대법원 규칙 제 942호」에 의해 넥타이를 개인의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착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넥타이를 자유롭게 착용한 법관들이 권위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1992년 「대법원 규칙 제 1,219호」에 의해 넥타이의 색채를 자주색으로 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⁵⁾

여성법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73년에는 「대법원 규칙 제 517호」에 의해 여성법관을 위한 법복도 제정하여 제시되었다. 기존 법복과 동일한 법복을 착용하고 백색 블라우스와 직경 1cm의 검정색 벨벳 리본 타이를 남성 넥타이에 대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성 법관들의 법복 착용 모습을 보면 제정된 법복의 양식이 그다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듯 하다.⁶⁾

Ⅲ. 국내의 법복의 조형적 분석

4) 대한민국관보, 제4248호, 1966년 1월 17일, p.298.

5) 앞의 책, p.934, p.1170.

6) 앞의 책, p.748.

법복의 사례를 수집한 국가는 92개국이었으며, 이 중에서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12개국 뿐이었고, 어느 국가의 법복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는 80여개국에 이르렀다. 이것은 분석 자료가 회의 기록사진이 많았으므로 소속 국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소속 국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외국의 법복으로 그 조형성을 파악하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92개 국가의 사례들을 모두 고찰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실물 법복 2건, 한국 대법원 간행 서적(법원사), 각 국가의 법원 출간 서적,⁷⁾ 법복에 관한 연구물 및 제7회 국제 상소심 법관회의(The 7th International Appellate Judges Conference)의 사진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각국의 법복은 업무용과 의례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으나, 가능한 이들 모두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 기준은 법복의 스타일,⁸⁾ 색상, 소재,⁹⁾ 문양, 세부장식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현행 국내 법복 분석

(1) 스타일

현행 국내 법복은 1966년 「법관복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여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1998년 2월 28일까지 착용한 법복을 말한다. 법복의 기본적인 형태는 가운형으로 그 원형은 미국의 법복과 거의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 가운의 앞길과 뒷길, 소매 등에는 주름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풍성한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다. 어깨에는 앞과 뒤에 요크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앞 요크의 아래

에는 4cm 깊이의 세로 플리츠를 납작하게 잡아서 2개씩 바깥 방향을 향하게 하였다. 뒤 요크의 아래에는 좁고 작은 셔링을 기계적으로 잡아주어 뒷부분은 유연하고 잔잔한 주름이 반복적으로 잡혀있다. 이 셔링 주름은 양쪽의 소매로 연결되어 어깨 부분도 강조되고 있다.

앞 중심에는 3개의 숨김 단추를 부착하여, 법복의 앞단이 서로 맞닿아 착용되도록 하였다. 앞 목선은 V형으로 파졌으며, 목둘레에는 검정색의 브레이드(braid)를 둘러 장식하고 있다. 뒤 요크의 세로 중심선에도 목선에서 요크의 아래 부분까지 검정색 넓은 브레이드를 사용하여 장식해 주었으며, 요크가 끝나는 부분에는 검정색 장식단추를 붙여서 정리하고 있다.

소매의 길이는 손목 관절까지이며, 소매통은 안으로 20cm 길이의 커프스를 붙이고, 블라우징 분량이 풍성한 형태를 이루며 덮이도록 하였다. 이 법복은 뒷부분에 과다하게 잡힌 셔링 주름으로, 입었을 때 의복이 뒤로 넘어가는 등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의복의 안쪽 양어깨 부분에 어깨 끈을 부착하여 착용자의 동체에 고정하여 입도록 하였다. 이 끈은 의복이 안정되게 착용되도록 하면서도 거추장스러운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복의 넥타이는 자주색으로 통일하여 착용하고 있다. 현행 법복이 처음으로 착용될 때에는 백색의 사선이 가늘게 들어간 검정색 넥타이를 착용하였으며, 그 후에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였다가(1986년), 1992년에 다시 자주색으로 통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¹⁰⁾

1973년에는 여성법관을 위한 법복을 제정하였다. 법복은 남성과 같은 양식을 착용하며 남성의

7) 독일, 싱가포르, 영국, 일본, 이태리,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 법원에서 발행한 서적.

8) 외국의 법복은 대부분 사진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미세한 부분과 디테일 등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9) 각 국가 법복의 소재는 안내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법복은 분석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10) 법원행정처, 1995, p.934, p.1170.

넥타이 대신 직경 1cm의 검정색 벨벳 리본 타이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2) 색 채

현행 법복의 색채는 검정색이다. 법복 착용자의 모습에서 색채를 보이는 부분은 법복, 셔츠, 넥타이, 하의 등인데, 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부분은 법복과 셔츠와 넥타이이다.

현행 법복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을 때에는 검정색과 백색의 색채대비를 보였다. 검정색은 법복과 넥타이에서 볼 수 있었고, 백색은 셔츠와 넥타이의 가는 사선의 문양에서였다. 흑백의 대비는 한국인의 인상을 분명하게 해주는 특징을 보인다.

넥타이의 색채가 착용자의 자유에 의했던 기간 동안(1986~1992)에는 법복의 색채대비가 보다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유분방한 차림새는 법관의 위모에 여유를 부여하는 동시에 권위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을 받게되어 다시 넥타이의 색채가 통일되었다. 이때 넥타이의 색은 자주색으로 결정되었으며, 여기에서 보이는 색채는 검정색, 백색, 자주색 등 세가지 색의 대비로 통일된 색채 분위기를 보였다. 따라서 법복의 주조색은 검정색이며 대비색은 백색이고, 강조색은 자주색이라 할 수 있다.

(3) 소 재

법관들에게 제공된 법복은 춘하용과 추동용 두벌이다. 이 두벌의 소재로는 모두 합성섬유가 사용되고 있다. 겨울용의 소재는 불투명한 합성섬유로 무겁고 정전기가 발생하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여름용의 소재는 얇고 투명하여 가벼운 대신 사진촬영을 하면 안에 입고 있는 옷이 다 비쳐 보여서 품위가 없어 보이는 단점을 보인다.

법복의 소재의 주소재는 합성섬유이며 부소재는 넥타이의 실크나 셔츠에 사용된 면 등이라 할 수 있다.

현행 법복을 처음 제정하였을 때에는 순모 직물

을 사용하여 의복 자체가 품위 있어 보였으나, 합성섬유와 같은 현재의 소재로 바뀐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품질이 낮은 소재들이 법복에 사용된 이유는 제한된 예산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현행 법복은 다른 일반 의복과 비교해 보면, 가격에 비하여 착용빈도를 고려해볼 때 매우 경제성이 높은 장점은 있다.

(4) 문 양

현행 법복에는 구체적인 문양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법복은 검정색의 단색이 사용되고 있으며, 넥타이는 자주색의 단색이 사용되고 있다. 넥타이의 자주색은 소재의 직조방법에 의하여 검정과 자주색이 섞여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능직으로 직조된 소재는 자세히 볼 경우에 매우 섬세한 사선이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주색으로 지각될 뿐이다.

문양이 없는 단색의 의복은 그 표면이 밋밋하여 관찰자의 시선이 의복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그 형태나 윤곽선에 집중되도록 한다. 이렇듯 문양이 배제된 단순한 의복은 의복 그 자체보다는 착용자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현행의 법복도 마찬가지로 풍성한 형태와 밋밋한 의복의 표면에 의하여 착용자의 품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5) 세부장식

현행 법복은 검정색의 단색으로 매우 단조로워 보이지만, 세부장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복의 완성도를 높인 장점이 있다. 세부장식의 예로는 요크, 셔링, 플리츠, 브레이드, 장식단추 등이 활용되고 있다.

법복에는 어깨부분에 앞과 뒤에 요크 부분을 배치하여 어깨부분을 정리해 주고 있으며 관찰자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아래에 잡힌 셔링은 양쪽의 어깨와 등부분 요크의 아래에 고르게 잡혀 있어서 매우 정교한 인상을 보인다. 더욱이 셔링의 아래로 연결되는 주름은 소매와 등

뒷부분에 유연한 선과 그림자 등을 출현시켜 단순한 형태의 법복의 표면에 다양한 표정을 나타내주고 있다. 앞가슴 부분에 잡아준 플리츠는 예리한 직선을 보이면서 셔링과는 다른 단정하고 간결해 보이는 이미지를 보이는 역할을 한다. 브레이드는 V-넥라인과 등뒤 요크의 중심선에 부착되어 정교한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정교한 모양의 브레이드는 그 형상으로 인해 수공예적인 인상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등뒤에 부착된 단추는 장식을 마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외국 법복 분석

(1) 스타일

법복은 대체적으로 길이가 길고 풍성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공통적인 스타일은 앞트임이 있는 가운(gown)형이 가장 많으며, 그 외에 케이프(cape)형과 재킷(jacket)형 등으로 분류되었다.

① 가운형

법복 중에 앞에서 여며 입는 카프탄 형식으로 크기가 넉넉하고 긴 길이의 형태를 한 경우를 가운형으로 분류하였다. 가운형은 넉넉한 품으로 풍성한 형태를 특징으로 하며 길이는 착용자의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공통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복은 가운형에 속하며 어깨와 소매 등이 잔주름으로 강조되어 있다. 상체의 앞뒤에 요크를 배치하고 앞부분에는 단정한 플리츠를 잡아주고, 소매가 부착된 부분과 등 요크의 아래쪽으로 돌아가며 규칙적이며 매우 정교한 주름이 잡혀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가슴부분의 플리츠는 개수, 방향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가운형은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약 86%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법복으로 채택되고 있다<사진 4><사진 5>. 각 국가의 법복은 주름 위치와 주름의 숫자 등으로 형태나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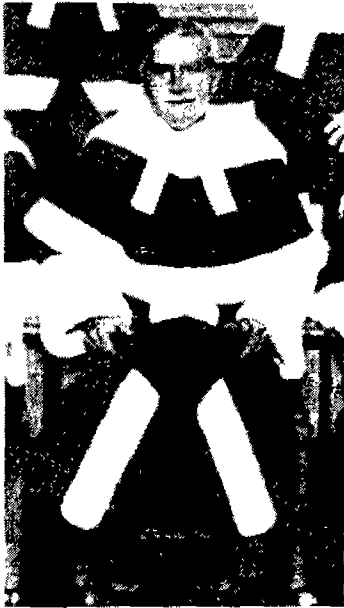
<사진 4> 미국 법복



<사진 5> 일본 법복

기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앞단의 유무, 혹은 앞단에 별도의 소재와 색채 등을 사용하여 개성적인 디자인을 창출하고 있다.

가운형인 일본 법복은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된다. 가운형 법복의 이미지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디자인의 세부에서 일본적인 특징을 가미했다



〈사진 6〉 캐나다 법복



〈사진 7〉 영국 법복

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일본 법복은 그 원형이 키모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넓은 깃과 구성이 평면적이며, 넓고 긴 소매의 디자인이 매우 독창적이다.

② 케이프형

법복의 어깨 위에 케이프가 덧대어 등과 팔을 덮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례는 케이프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케이프를 포함하여 케이프가 부착된 유형의 법복이 포함된다.

케이프의 아래에는 정상적인 코트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매가 있는데, 간혹 소매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유형은 캐나다, 영국 등의 국가를 포함하여 10%의 국가에서 채택하여 착용하고 있다〈사진 6〉〈사진 7〉.

③ 재킷형

재킷형은 일반적인 재킷을 법복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양복을 입은 것처럼 착용자의 신체적인 특징이 드러내는 유형을 말한다. 이 유형은 재킷과 슬렉스로 구성된 수트 형태가 특징이다.

재킷형 법복의 사례로는 중국을 들 수 있는데, 스탠드 칼라와 더블 브래스트드 여밈과 금장 단추를 부착하고 있어서 군복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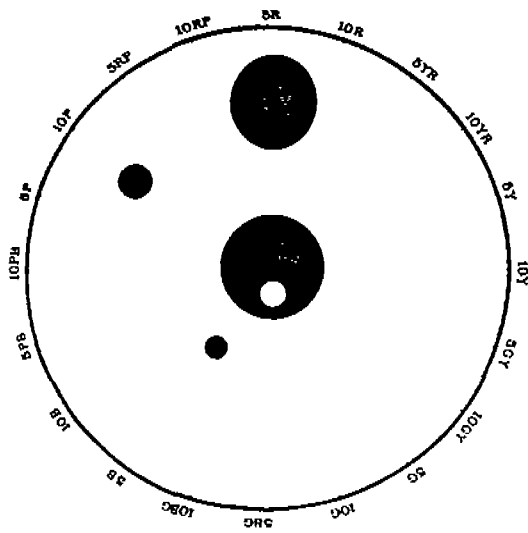
2. 색 상

각 나라 법복의 색상은 매우 다양하며, 색채에 따라 법복의 이미지가 정해지고 있어서 법복에 사용된 색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법복에는 한가지 색상을 사용한 경우도 있고, 여러 색을 대비시킨 경우도 있다. 여러 색을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주조색과 보조색이 있다. 보조색은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의미에서 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법복에 많이 사용된 주조색과 보조색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① 주조색(main color)

법복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은 검정색으로 여러 국가 중 약 60% 정도가 검정색 법복을 착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을 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운데형 법복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은 빨간색으로 약 32.5%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케이프형의 법복에 많이 사용되어 보수적인 인상을 준다. 빨간색 법복을 착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캐나다,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의 색상으로는 자주색(wine)이 2.5%, 파란



〈표 2〉 법복의 주조색 비 및 색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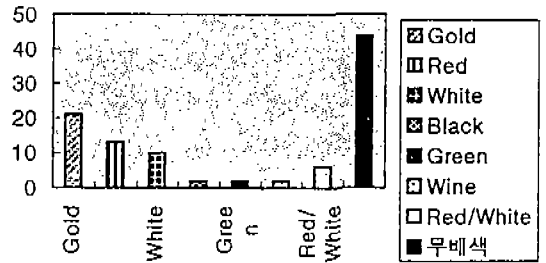
색, 군청색, 녹색, 흰색이 각각 1.25%로 나타났다〈표 2〉.

따라서 법복의 주조색으로는 검정색, 빨간색, 자주, 파란색, 군청색, 녹색, 흰색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법복은 부분적으로 주조색과 다른 색상의 보조색을 대비시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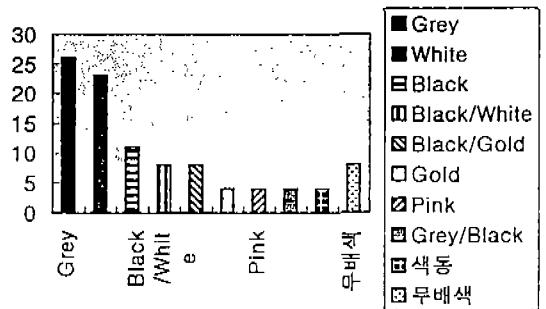
② 보조색(sub color)

보조색은 주조색을 보완하거나 강조하기 위하여 주조색의 대비색으로 사용한 색을 말한다. 법복이 한가지 색으로 된 사례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장식이라든가 부속 부분에 주조색과의 조화나 그 색이 지닌 의미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색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복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검정색 법복과 빨간색 법복을 중심으로 각각의 보조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검정색 법복에는 여러 색이 보조색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보조색은 금색으로 전체의 21%이며, 그 다음이 13%의 비율을 보이는 빨간색이다. 그 외에도 흰색(10%), 녹색, 자주색 등이 있으며, 빨간색과 흰색을 혼합하여 사용한 사례도 찾아볼 수가 있었다〈표 3〉.



〈표 3〉 검정색 법복의 보조색 비



〈표 4〉 빨간색 법복의 보조색 비

빨간색 법복의 보조색으로는 회색(26%)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흰색(23%), 검정색(11%) 순으로 나타나 있다. 그 외에도 검정색과 흰색의 조합, 검정색과 금색의 조합, 검정색과 회색의 조합, 분홍색, 금색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표 4〉. 또한 여러 색을 연결하여 색동처럼 색색의 줄을 장식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법복에 사용된 보조색들은 색채가 갖는 상징성 외에 색채대비 효과나 색채조화의 원리를 활용하여,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소 재

법복에 사용된 소재는 주로 모직물, 견직물, 합섬직물 등이 사용되었다. 법복은 의례복인 동시에 업무복이므로 품위와 실용성을 고려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① 주소재(main fabric)

법복의 주소재로 사용된 직물중 대표적인 것은 모직물이고 그 외에도 견직물과 합섬직물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물 및 문헌자료, 사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직물은 드레이프성이 뛰어나고 질기며, 따뜻하여 주로 동복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소재는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법복의 주소재로 애용되고 있다.

견직물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소재이다. 견직물은 직조방법에 변화를 줄 때, 평견, 자카드, 공단 등의 직조방법에 의해 다양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어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평직의 견직물이 사용된 사례는 일본 법복을 들 수 있다. 일본 법복은 무늬가 없는 검정색 평견 직물을 사용했는데, 고급스럽기보다는 매우 실용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이는 소재가 비교적 얇고 가벼우

며, 법복의 길이가 짧고 디자인이 일본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사진 5>.

실크 자카드 직물을 법복에 사용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의 법복은 견직물의 중량감도 있어 보이고, 표면에 장식문양도 화려하게 나타나 있는 등 상당히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사진 8>¹¹⁾.

법복의 소재로 비스코스와 폴리에스터 혼방을 주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¹²⁾ 싱가포르 법복이 그 예인데, 이는 기후의 영향이 어느 정도 법복의 소재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사진 9>.

또한 아이슬랜드는 벨벳으로 보이는 직물을 법복의 주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벨벳은 소재 표면이 기모되어 있어서 따뜻한 인상이 강하고, 부피감이 있어서 품위 있어 보이는 특징이 있으나, 더운 기후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점이 지적될 수 있다<사진 10>.



<사진 8> 영국 법복(예장)



<사진 9> 싱가포르 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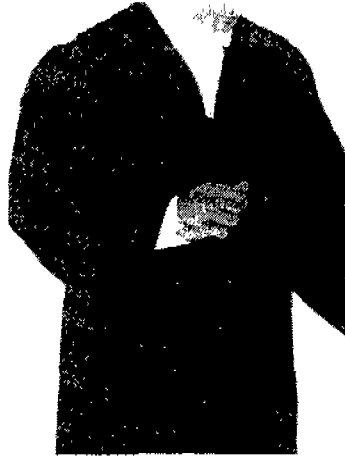
<사진 10> 아이슬랜드 법복

11) Una Campbell, [Robes of the Realm], Michael O'mara Books Limited, 1989, p.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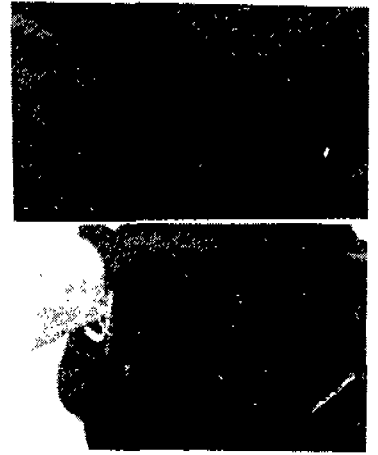
12) Singapore Academy of Law, Singapore Academy of Law Newsletter February, 1995, Issue No. 34, p.1.



〈사진 11〉 프랑스 법복



〈사진 12〉 독일 법복



〈사진 13〉 이태리 법복

② 부소재(sub fabric)

법복을 강조하거나 장식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소재들이 활용되고 있다. 부소재로는 공단(satin), 벨벳, 모피, 금사 등 화려한 느낌의 소재가 많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 직물들은 주로 외관이 이질적이어서 주소재의 밋밋한 표면과 대조적인 시각효과를 보인다. 표면에 보이는 재질감의 대비는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면서 법복의 장식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부소재로 공단을 사용한 사례는 프랑스 법복을 들 수 있다. 프랑스 법복은 검정색 모직을 주소재로 활용하고, 몸판의 앞부분과 소매단에 넓게 검정색 공단을 사용하고 있다(사진 11). 공단은 빛의 반사에 따라 광택이 다르게 보이므로, 착용자와 조명의 움직임에 따라 빛의 반사를 통한 시각적인 울동미를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직물의 표면이 밋밋하여 단순해 보이는 검정색 법복에 시각적인 변화를 가미하여 관찰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벨벳도 공단과 마찬가지로 법복의 부소재로 애용되고 있다. 벨벳은 공단과는 달리 빛을 흡수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소재의 표면은 더 짙어 보여

서 품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벨벳은 대학교 학위복이나 성직자들의 예복에 부소재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다. 벨벳을 법복의 부소재로 애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의 법복을 들 수 있다. 독일 법복은 비교적 단순하여 실용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 인상적인데, 법복의 앞단 부분과 소매단에 검정색 벨벳을 넓게 대어 품위 있는 이미지를 가미한 것이 돋보인다(사진 12).

이태리와 같이 공단과 벨벳의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색채는 통일하면서 소재에 변화를 준 경우이다. 소재의 다양한 시각효과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미묘하고도 섬세한 분위기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사진 13).

의례용으로 착용된 캐나다의 빨간색 법복은 가장자리에 흰색 밍크 털이 둘러져 있다.¹³⁾ 빨간색과 백색의 대비는 선명한 색상대비로 시선을 끄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주소재의 밋밋한 표면과 부소재로 사용한 모피의 재질감 역시 매우 대조적인 시각 효과를 보인다(사진 6).

법복의 품위를 높이고 더욱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금사를 사용한 브로케이드(brocade)나 자

13) Minister of Supply and Services Canada, [The Supreme Court of Canada], 1993, p.7.

수 소재 등을 부소재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는 영국의 예장용 법복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⁴⁾ 짙은 색의 직물에 시문된 금색 문양은 현란한 색채조화를 보이며 주변을 제압하여 권위적으로 보이기도 한다<사진 8>.

(4) 문 양

조형 요소의 하나인 문양은 복식에서 장식적인 목적이나 상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법복에 사용된 문양은 마찬가지로 법관의 지위나 업무를 상징하거나 소속 국가를 상징하기도 한다.

법복에 사용된 문양의 종류는 자연문양과 기하



<사진 14> 식물 모양



<사진 15> 십자 문양

학적 문양 등이 있는데, 이 문양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의미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 법복에는 문장의 일부본인 식물문양과 기하학문양이 시문되어 있고, 스위스 법복에서는 국기에서 볼 수 있는 백색 바탕의 빨간색 십자(十字)문양을 볼 수 있다<사진 14><사진 15>.

문양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¹⁵⁾ 구체적인 방법은 자카드와 같이 직조에 의하여 직물의 지문으로 나타낸 경우, 여러 색사를 사용한 자수 기법 등이 있다. 영국 법복은 금사를 사용하여 식물문양과 기하학문양을 자수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양에 사용된 색에 따라 법복의 느낌은 달라지는데, 법복의 색과 대조적인 색을 사용한 경우에는 매우 장식적으로 보이며, 법복의 색과 유사하거나 같은 색을 문양에 사용한 경우에는 차분하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보이기도 한다.

(5) 세부장식

법복을 이루고 있는 조형요소 외에도 법복의 다양한 세부장식들은 법복의 품격을 높여서 완성도를 주는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들은 법복의 전체에 확산되어 있으므로, 착용자의 인체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각 부위에 가해진 장식적인 요소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① 머리 장식

머리부분에 대한 장식(頭飾)은 의복을 완성하며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법복에도 의례복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법모를 착용하거나 가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법모는 법복의 필수적인 품목으로 여겨져 왔다. 실용주의가 확산되면서 간소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현재는 많은 나라에서 법복에 모자를 제외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법모는 법복의 의미나 의례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법복을 착용하는 약 25%의 국가에서

14) Una Campbell, 1989, pp.97-8.

15) 문양의 표현방법 중 자수기법 등은 세부장식의 항목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양 항목 안에 종류 및 표현방법을 포함하여 문양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사진 16〉 여러 가지 유형의 법모



〈사진 17〉 여러 가지 유형의 가발

법모를 수용하고 있다. 이들 법모는 색채, 소재, 쉐의 유무와 폭이나 길이 등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며, 해당 법복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사진 16〉.

가발도 법복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 대상국가의 1/3 정도가 법복에 가발을 착용하고 있으며, 가발은 형태, 길이, 색상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사진 17〉. 이 가발은 바로크 시대의 양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데, 주로 보수적인 법복의 유형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법복에는 은회색 가발이 착용되는데, 영국 제도의 영향을 받은 국가는 법복에 가발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② 목 장식

목부분은 얼굴 가까이 위치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디자이너나 착용자가 모두 관

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법복도 예외는 아니어서 법복의 목부분에 장식 요소나 치장이 집중되어 있어서 착용자를 돋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다.

법복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목부분 장식(頸飾)으로는 넥타이를 들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목 바로 가까이에서 매듭을 묶는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 넥타이는 법복의 네크라인이 목부분에 형성하는 V-zone 안에서 강조의 요소로 활용되며, 백색 셔츠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각 효과를 창출한다. 즉 셔츠와 넥타이가 서로 대조되는 색을 사용할 경우에는 넥타이가 부각되는 초점으로 작용하게 되며, 서로 유사한 색을 사용할 경우에는 셔츠와 어우러져서 V-zone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전자의 사례로는 한국의 자주색 타이틀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등에



〈사진 18〉 여러 가지 유형의 타이

채택된 비교적 평면적이고 단순한 모양의 흰색 넥타이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넥타이의 색은 각 국가의 법복 디자인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색상이 채택되고 있다.

넥타이 대신 화려한 레이스 자보(jabot)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나이지리아 등은 목장식으로 화려한 레이스를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하여 착용하고 있다. 이태리의 목장식은 자보와 보우타이가 함께 부착된 유형이다. 프랑스는 넥타이에 좁은 턱(tuck)이 촘촘하게 잡혀있으며, 캐나다는 일종의 애스켓 타이를 착용하고 있는데, 아래로 내려진 부분이 두 갈래로 되어 있다(사진 18).

법복에는 여러가지 칼라가 활용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은 스탠드 칼라를 사용하였고, 이태리는 세일러 칼라(sailor collar), 일본은 동양복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을 활용하였다. 그 외에도 법복에 솔 칼라 등을 활용한 국가도 찾아볼 수 있다.

법복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목걸이나 펜던트 등을 활용한 국가들도 있다. 목걸이들은 대부분 금(金)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의미나 상징성이 있는 펜던트 등을 첨가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다. 특이한 예로는 법복의 어깨 부분에 금사를 이용하여 체인 목걸이 모양을 직접 자수한 후 거기에 펜던트를 부착한 나라도 있다.

③ 소매와 소매부리 장식

손과 팔부분도 법복 장식의 주요한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흰색 장갑과 흰색 러플 소매는 소매부분을 강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영국과 나이지리아 등의 법복에는 장갑과 러플 소매가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몇 나라에서도 각각의 장식들이 별도로 사용된 예를 볼 수 있다. 러플 소매는 흰색 옷감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제작된 것도 있지만, 화려한 경우에는 여러 겹의 레이스를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제작된 것도 있다(사진 19).

팔부분에도 장식적인 요소가 가미된 경우가 많다. 미국 법복은 소매산을 중심으로 앞뒤로 정교한 주름이 잡혀있어서 풍성한 형태의 소매를 만들고 있다. 이 풍성함은 전체 법복의 형태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강한 인상을 준다. 일본 법복의 소매는 키모노의 소매처럼 넓게 평면적으로 제작되었고, 소매의 단에는 단과 평행으로 4개의 주름을 잡아서 평면적인 소매 단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소매산에는 신축성 있는 서링¹⁶⁾을 잡아주어 장식과 활동성을 겸하게 하였다.

이태리 법복의 소매는 폭과 수구가 매우 넓은데, 소매산 부분에는 긴 펜슬형의 장식주름을 잡아주었다. 여기에 금색 술과 로프를 어깨에서부터 늘어뜨려 매우 화려한 인상을 주는 동시에 장식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소매 단에는 동색이나

16) 最高裁判所事務總局編, [日本の裁判], 平成7年, p.29.



〈사진 19〉 소매부리 장식

이색(異色)의 단을 부착한 경우도 있으며, 색동의 단을 부착한 경우도 있다.

④ 몸체 장식

동체부분은 인체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위로 비교적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장식 요소가 활용되고 있다. 법복의 앞단이나, 선장식, 주름, 목에 걸쳐서 앞으로 내려뜨리는 착용하는 스톨 등은 법복의 동체 부분을 강조하는 요소들이다. 앞단은 동체의 중심에 소재의 변화나 색상의 대비를 통하여 수직적인 선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디자인은 장식적인 목적 외에 착용자의 품위를 높이거나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주름은 일반적으로 두 종류가 사용되는데 앞부분에는 대부분 플리츠가 사용되고 있고, 뒷부분은 셔링을 준 잔주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동체에 주름을 잡아 주는 것은 법복의 인상을 단정하게 보이기 위함이며 주름의 분량은 활동에 필요한 여유분을 줄 수 있기도 하다.

스톨은 별도의 긴 형태의 직물로 착용했을 때에는 그 형상만 지각되어 앞단이나 선장식처럼 보인다. 다양한 크기나 색채가 있고,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법복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품목이다. 스톨은 법복에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 유래는 성직자들의 종교복에서 찾아볼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우리 나라 법복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는 않으며,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몇 차례 변천한 사례가 있다. 1895년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복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06년으로, 법관과 사무관들이 재판시에 법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법복의 복제를 그대로 채용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53년에 독자적인 법복을 제정하여 착용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법복제도의 시발이 되었다. 1966년에는 대학교의 학위복을 기본으로 한 법복을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법복의 특징은 가운데형 스타일이며 색상은 검정색 단색이다. 소재는 합성섬유를 사용하였으며, 추동용과 춘하용 두벌르 구분하여 착용하고 있다. 장식문양이나 보조색, 부소재 등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하며 실용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학위복과 성직자복과 유사하여 법관복이라는 이미지가 적으며, 특히 미국 등 외국 법복과

같은 양식을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적인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국내의 법복의 조형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법복의 스타일은 가운데형, 케이프형, 재킷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가운데형이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국가의 법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 다음은 케이프형이며, 극소수의 국가에서 재킷형이 착용되고 있다.

둘째, 법복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채는 검정색이며 그 다음은 빨간색이다. 검정색은 약 60%의 국가에서 법복의 주조색으로 사용한 반면, 빨간색은 약 33%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법복의 보조색은 검정색 법복에는 금색(21%)이, 빨간색 법복에는 회색, 백색, 검정색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색상, 명도의 차이가 큰 색채 대비를 보이고 있어서 법관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효과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법복에 사용된 소재는 모직물, 견직물, 합섬직물 등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견직물이나 벨벳 소재도 소수의 국가에서 사용되었다. 부소재로는 공단, 벨벳, 모피, 금사 등의 순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화려한 이미지를 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소재의 표면 재질감의 차이는 법복의 표면에 대조적인 표면효과를 창출하게 되어 디자인의 특징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넷째, 법복에 사용된 문양은 자연문양과 기하학적 문양 등이 있으며, 문양의 표현 방법은 자카드와 같이 직물의 지문이나, 여러 색사를 사용한 자수기법 등이 있다. 이들은 장식적인 목적 외에도 각 국가를 상징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법복의 품위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법복 외에 법모나 가발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속 장식품으로 사용된 품목으로는 목걸이, 스몰, 넥타이, 술과 로프, 선장식, 러플, 장갑, 구두 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법복은 외국의 법복과 차별

화되지 못하고 개성이 없으므로, 한국적인 정체성을 지닌 법복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향후 새로운 법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정리한 국내의 법복의 조형성을 유념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의 존엄성을 나타내면서 착용자의 품위도 표현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한국적인 정체성을 갖는 개성 있는 법복의 연구에 본 연구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대한제국관보.
- 조선총독부관보.
- 법원사편찬위원회,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 最高裁判所事務總局編, 日本の裁判, 平成7年.
- Ecole National De La Magistrature, Devenir Magistrat, 1993.
- Minister of Supply and Services Canadas, The Supreme Court of Canada, 1993.
- Singapore Academy of Law, Singapore Academy of Law Newsletter, 1995.
- Supreme Court of Korea, Judicial System of Korea, 1988.
- Una Campbell, Robes of the Realm, Michael O'mara Books Limited, 1989.
- W.N.Hargreaves-Mawdsley, Legal Dress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ABSTRACT

A study on the Judge's Robe

This study is focused on two things, on the matter of judge's robe(JR) which is worn in the court. First, Korean JR were examined from late 19th century through today(1997) to

reveal the entity of the JR : characteristics of each JR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political or international influences. Second, JR from 92 countr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figure out the plastic characteristics of the JR among international socie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Korean JR were have changed many times according to the social, political influences. The Korean modern judicial system were proclaim in 1895 and JR were adapted in 1906. In 1920, Japanese style JR were worn until 1945 when Korean government have had her Independence. Korean Government have changed JR through which Korean identities were expressed through patterns such as national flower Mukungwha(Hibiscus) and Yang & Yin. In 1966 Korean JR were changed again and adopted western style JR until today (1997) which have many things in common with academic robe of university or clerical robe.

Second, the analysis of the 92 international JR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JR were consisted of three styles such as Gown style, Cape style and Jacket style. And Gown style has been found as the most popular style(86%) for JR among them. (2) As the main color of JR, black is used among 60% of countries and red is used in 33% of countries. Gold were matched for black JR and gray for red JR as their sub-color. (3) The most popular material were wool and satin were favored as its sub-materials. (4) Natural and Geometric Patterns were used to express the symbol of the country and the court. (5) Decorative items and details such as hat, gloves, shoes, wig, necklace, neck-tie, stole, tassels, rope, ruffles were used to express wearers dignity and symbolism.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adapted for the future design for new JR which has its identity and characteristics.